

美, 수입차 고관세 부과 임박...車업계 초긴장

현실화 땀 기아차 광주공장 직격탄...지역경제 타격 불보듯 쏘울·스포티지 3개 공장 중 1곳 물량 18만대 사라져 '긴장'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의 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가 임박하면서 국내 완성차·부품업체가 초긴장 상태다. 특히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 물량이 많은 기아차 광주공장의 경우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면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어 지역 경제 우려도 높은 실정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중으로, 오는 19일까지 관세 부과 계획 등을 담은 '수입 자동차 및 부품의 국가안보 영향조사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9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지난해 3월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할 때 적용한 법률로, 수입산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태껏 보고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모든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20~25% 관세를 부과하거나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 관련 부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관세 폭탄' 발표가 임박하면서 정부와 국내 자동차 업계도 초긴장 상태다.

정부는 최근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을 보내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등 트럼프 행정부와 척 그래스리 상원 재무위원장 등 의회 내 통상관련 의원과 미국 업계 등을 대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조사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 등 전략적 대미 아웃리치(대외 접촉) 활동을 펼치며 총력 대응하는 모양새다.

한국 통상당국은 그동안 미국의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먼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타결하고 발효했고 ▲개정협정에 미국의 자동차 분야 민감성을 반영한다, ▲상호 호혜적 교육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 등을 강조

하며 관세 부과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해왔다.

하지만 업계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수입차에 고율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 해 80만대 이상의 완성차를 수출하는 국내 자동차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장, 기아차 광주공장의 경우 전량 생산하는 쏘울과 스포티지를 미국에 수출해 오고 있는 만큼 25%에 달하는 고율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면 미국 수출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현대기아차 전체적으로는 지난 2017년 59만대를 미국으로 수출했고 기아차 광주공장에서는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생산량(49만2233대)의 37.3%인 18만3959대를 미국으로 수출했다.

특히 광주공장이 전량 수출하는 쏘울의 경우 2018년 전체 생산량(15만6716대)의 98.3%(15만4134대)가 수출됐고 이 가운데 미국 수출 물량은 59.6%인 9만3558대에 달했다. 여기에 올해 새로 생산하는 쏘울 부스터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도 "미국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가 현실화되면 광주 3개 공장 중 1곳 물량인 18만대가 사라지게 된다"고 밝힌 바 있

다.

현대기아차 뿐 아니다. 르노삼성의 경우 지난 2017년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생산한 26만4037대 중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46.7%인 12만3202대에 달했다. 한국GM도 25.2%에 이르는 물량을 미국으로 수출했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다. 자동차 산업은 광주 제조업의 39.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아차 광주공장도 광주 지역 제조업 종사자의 10%, 광주 총 생산액의 32%, 총 수출액의 40%에 달한다. 광주지역 1차 자동차 부품업체 중 74.1%(2016년 기준)가 기아차에 납품하는 등 부품업체의 완성차업체에 대한 의존도도 높다.

'관세폭탄' 현실화로 기아차 광주공장의 수출 물량이 줄면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 뿐 아니라 지역 고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역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추진되면 기아차 광주공장을 비롯, 2·3·4차 중소기업체의 물량 감소 및 매출 타격과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03.42 (-0.04)	금리(국고채 3년) 1.80 (0.00)
↑ 코스닥 728.79 (+11.87)	↑ 환율(USD) 1124.10 (+5.30)

세뱃돈 고금리로 굴러볼까

어린이 예·적금, 보험, 펀드 등 시중은행 금리우대 상품 잇따라

자녀의 세뱃돈을 용돈으로 맡겨놓는 대신, 어린이 예·적금, 보험, 펀드 상품에 활용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훗날 자녀를 위한 목돈을 준비할 수 있고 일찍부터 경제관념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아이행복적금'의 경우 영유아(만 0~5세) 전용 적립식 상품이다. 12개월간 월 20만원 이내로 적립할 수 있다. 기본이율은 연 1.55%, 우대금리를 포함한 최고 이율은 연 2.35%다. 새해, 설날, 어린이날, 추석 이후 5영업일 안에 저축을 하면 건별 0.1%포인트를 더 주는 우대조건이 있다.

KEB하나은행이 내놓은 '아이 꿈하나 적금'은 기본 1년제지만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매년 다시 예치할 수 있고, 긴급 인출도 된다. 분기 최대 150만원, 연 6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 기본금리 연 1.75%와 거래조건에 따른 우대금리 최대 0.8%포인트를 제

공한다. 희망하는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축하금리로 마지막 1년간 2.0%포인트를 더 준다.

KB국민은행의 'KB Young Youth 적금'의 기본 금리는 연 1.85%로 가입자가 만 0세, 7세, 13세, 16세, 19세가 되는 해엔 0.5%포인트를 추가로 준다. 여기에 기타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연 3.15%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민은행이 6개월 만기 상품으로 오는 14일까지 판매하는 설맞이 정기예금 상품인 '공동구매정기예금'도 최종 판매된 금액이 1000억원 이하라면 연 2.02%, 1000억원을 넘으면 연 2.10% 금리를 제공한다.

'우체국 다모아 e적금'도 판매량과 개인일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연 3.3%까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남지방우정청은 여기에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한돈 세트와 한돈 할인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연다. OK저축은행도 하루만 말 거도 연 1.9% 이자를 얹어주는 '중도해지OK정기예금'을 내놓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7500여명 모집

LH 1000명·한전 900명

올해 주요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체험형 인턴 채용 규모가 7500여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7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 '2019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참가한 공공기관 가운데 체험형 인턴 전형을 진행하는 106곳의 채용 계획을 분석한 결과 총 모집 인원이 7531명으로 파악됐다.

분야별로는 사회간접자본(SOC)이 20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보전복지와 금융이 각각 1169명과 1081명이었다.

개별 기관 중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체험형 인턴 1천명을 뽑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채용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한국전력공사(900명) ▲한국철도공사(430명) ▲한전KPS(300명) ▲IBK기업은행(300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채용 기간별로는 상반기에 진행되는 기관이 전체의 49.6%로 나타났고 하반기 채용 계획을 밝힌 곳은 26.0%였다. 나머지 24.4%는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을 기자dok2000@kwangju.co.kr



신학기 트렌드 '뉴트로' 만나세요
광주신세계백화점(대표이사 최민도)은 신학기를 맞아 뉴트로(New+ Retro·복고로 새롭게 즐기는 경향)로 대표되는 핫 트렌드 아이템들과 이벤트 출판을 통해 1020 세대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1층 이벤트홀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웨이브 신학기 특집전. <광주신세계 백화점 제공>



광주~제주 편도 2만원대 다녀 오세요

제주항공, 5~6월 항공권
'JJ멤버스위크' 특가 프로모션

봄 여행 시즌에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제주항공은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회원 대상 5~6월 출발 항공권을 할인 판매하는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JJ멤버스위크는 '제주항공 리프레시 포인트' 회원을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탑승할 수 있는 국내선과 국제선 노선의 특가 항공권을 판매하고

등급별 다양한 쿠폰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이다. 국내선은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모두 포함한 총액 운임 편도항공권을 기준으로 가장 낮은 운임은 광주~제주 구간 2만2000원 미만 구입할 수 있다. 국제선의 경우 무안공항에서 출발하는 일본 오사카노선은 5만6400원부터, 대만 타이베이 노선은 6만6500원, 방콕 10만600원, 베트남 다낭 14만8700원부터 예약할 수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새로운 방식의 독창적인 백내장 수술

젯토(ZEPTO) 노안·백내장

정확 신속 안전

-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 삽입 위해 수정체 전낭 절개 필요
- 기존엔 칼을 사용해 수기로 하던 전낭절개를 젯토 장비로 깨끗하고 안전하게 제거
- 미세전류를 이용해 360도 원형의 완벽한 수정체 전낭 절개 가능
- 형상기억합금으로 주변 세포에 열 손상을 최소화하고전낭 절개면 인장 강도 높여 안전
- 수기로 제거시 시간이 걸릴수도 있지만 젯토 사용시 수술 시간 현격히 단축
- 동공이 작거나, 백내장 진행이 심하고, 각막이 혼탁해도 쉽게 수술 가능
- 완벽한 전낭 절개로 더욱 안전하게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1566-9988 9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